

주제전문사서로서의 정신보건사서 양성 교육과정 개발*

Developmental of Curriculum for Training Professional Librarians Specializing in the Field of Mental Health

임 성 관(Seong-Gwan Lim)**

< 목 차 >

- | | |
|-----------------|------------------------|
| I. 서론 | 2. 정신보건사서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선행연구 |
| 2. 연구문제 및 방법 | III. 정신보건사서 양성 교육과정 개발 |
| II. 이론적 배경 | IV. 결론 및 제언 |
| 1. 주제전문사서 | |

초 록

본 연구는 사회구조의 변화 및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의 출현에 대한 대응기제로서 정신보건사서라는 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 조사를 통해 독서치료의 특징, 정신보건사서의 역할, 자격요건과 양성제도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계속 교육의 필요성과 실제 교육과정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일련의 단계를 고찰하였다. 나아가 정신보건사서 양성을 위하여 문헌정보학과 교과목에 독서치료 영역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개설하고, 향후 교과과정 편성에 있어서 주제 전문화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필요성, 그리고 우리나라 현실에서 정신보건사서의 양성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으로 문헌정보학과 대학원에 '정신보건사서' 과정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주제전문사서의 자질 개발과 확충을 위한 지침으로서, 주제전문사서의 역할 확립과 우리나라 도서관 현장과 학계의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키워드: 사서, 주제전문사서, 정신보건사서, 교육과정 개발, 독서치료 상담실

ABSTRACT

There is a strong need to develop a training program for specialized personnel called mental health librarian. The study examines the necessity of ongoing education as series of steps to be considered in actual curriculum development, by looking at the features of bibliotherapy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through an analysis to the requirements of a qualified mental health librarian and its training system. The result shows that, in order to train librarian in mental heal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urses corresponding to the bibliotherapy field within the subjec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s and to strengthen the specialization in the its curriculum.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the mental health librarian educational program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graduate programs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fundamental data for future research, will promote the role of the specialized mental health librarian and guidelines for developing and expanding the qualities and training of specialized librarian to resolve the immediate problem of the Korean library scene and academia.

Keywords: Librarian, Subject specialist librarians, Mental health professional librarians (psychiatric mental health librarians), Developmental curriculum, Bibliotherapy counseling center

* 본 논문은 2017년 11월 10-11일 동의대학교 인문대학에서 열린 '2017 하반기 한국도서관정보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 휴독서치료연구소 소장,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강사(harin75@hanmail.net)

•논문접수: 2017년 11월 14일 •최초심사: 2017년 11월 25일 •게재확정: 2017년 12월 18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4), 259-282, 2017. [http://dx.doi.org/10.16981/kliiss.48.201712.25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는 점점 세분화 및 전문화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요구되고 있다. 각 분야의 전문직(professions)들은 사회의 중심적 가치와 관련이 깊은 제 문제에 대해 일련의 체계적 지식과 경험을 응용하고, 그 과정을 통해 숙련성과 전문성을 인정받는다. 사서들 역시 전문직으로 근무하면서 도서관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에 들어가 있는 만큼 생존을 위한 전문성을 계속 발전 및 유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현 시대에 도서관 및 사서들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무엇일까? 현 시대는 많은 영역이 세분화 및 전문화되면서 매니아(mania)적인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제별 접근을 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더불어 사회 흐름이 빨라지면서 적응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 소통 및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그 결과 ‘힐링(healing)’이나 ‘치료(therapy)’, ‘상담(counseling)’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고, 그 분야에 관심을 갖는 이들도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의 많은 도서관들은 공통된 서비스 영역을 넘어 주제별 세분화를 피해 나갈 필요가 있고, 사서들 역시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적정 서비스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마침 우리나라의 도서관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활성화되기 시작한 독서치료 분야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적응 및 관계 증진, 성찰을 통한 자아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독서치료 분야에 관심을 가졌고, 출판 영역에서 관련 자료들 또한 많이 출간되자 일부 도서관에서는 ‘독서치료 상담실(bibliotherapy counseling center)’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이는 도서관이 기존의 운영 목적에 더해 ‘힐링’이나 ‘치료’, ‘상담’의 장으로도 거듭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도서관 사서들이 기존의 읽기 독서치료¹⁾의 수준을 넘어, 이용자(치료 신청자, 대상자)를 만나 상호작용을 통한 적극적인 치료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이 요구됨을 인식시키는 계기 또한 되었다.

그러나 정신과 병원이나 정신보건센터, 복지관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을 목적으로 설치 및 운

1) Reading Bibliotherapy. 정보 제공형 독서치료라고도 불리는 유형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주제를 이야기 하면 사서는 적정 자료를 찾아 제공해 주고, 그 자료를 이용자가 읽으면 치료가 된다는 원리이다. 이때 사서는 적정 자료를 골라 제시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치료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측면인데, 이는 소극적인 치료사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영되고 있는 기관들이 많은 상황에 굳이 도서관이 정신보건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 역할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전국의 모든 도서관들이 독서치료 상담실을 설치해 운영하는 상황도 아니고, 담당 사서들 역시 독서치료 전문가(힐링 전문가, 상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기만 하다. 그럼에도 도서관은 정신과 병원이나 정신보건센터, 복지관 등의 정신보건 전문 기관들에 비해 시민들 가까이에 있어 부담 없이 왕래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고, 책과 독서의 과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치료적 효과가 있었다는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으며, 나아가 도서관과 사서들 역시 주제별 전문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자 전문가로서의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논쟁에 대해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지역 사회정신보건사업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제공을 위해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추어, 도서관은 도서관의 특성을 살려 행해 나갈 수 있는 일(일례로 정신보건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선별(screening)하고 적정 독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해주는 일)을 통해 독서치료 상담실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기 위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2. 연구문제 및 방법

본 연구는 사회구조의 변화 및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의 출현에 대한 대응기제로서 정신보건사서라는 전문 인력의 개발기제를 점검하고 양성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이론적 기반 형성을 위해 문헌 조사를 통해 독서치료의 특징, 주제전문사서로서 정신보건사서의 역할, 자격요건과 양성제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에 따른 계속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실제 교육과정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일련의 단계를 고찰하였다.

둘째, 주제전문사서로서의 정신보건사서를 양성하기 위하여 문헌정보학과 교과목에 독서치료 영역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폭넓게 개설하고, 향후 교과과정에 참고하여 주제 전문화를 강화시키는 편성 방안도 검토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정신보건사서의 양성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으로 문헌정보학과 대학원에 ‘정신보건사서’ 과정을 설치하도록 제안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주제전문사서

가. 주제전문사서의 개념

주제전문사서는 르네상스시대의 대학 사서로부터 시작되어 시대, 국가, 관중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어 왔는데, 가장 널리 쓰이는 용어는 주제전문가(subject specialist)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문헌정보학계에서는 ‘주제전문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미국은 ‘주제전문가’라는 용어 외에 ‘주제전문사서(subject specialist librarian)’, ‘주제서지가(subject bibliographer)’, ‘서지가(bibliographer)’, ‘전문가(specialist)’, ‘참고서지가(reference bibliographer)’ 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김중환이 1970년 ‘도서관 관계 전문직과 관계 학문의 재규정’이라는 논문에서 ‘전문주제사서(special subject librarian)’라는 용어를 표기한 바 있으며, 상기의 ‘주제전문가’와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주제전문가’란 용어는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bstracts의 1972년도 연간 색인(Annual Indexes)부터 ‘Subject Specialist’란 항목이 독립항목으로 내세워져 주제전문사서의 개념이 더욱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었고 재인식의 계기가 되었다(한상완 1975, 29).

우리나라는 주제전문사서에 대해 법적으로 정확하게 정의된 것은 없으며, 문헌정보학용어사전(사공 철 등 2003, 340)에서 “주제 분야에서 고도의 지식을 소유하고 관련 주제 영역의 자료를 선정,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아울러 정보서비스와 서지업무를 담당하는 도서관 직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Fussler(1949)의 이론을 바탕으로 Humphreys(1967), Holbrook(1972)는 주제전문사서(subject specialists)를 “특정 주제 분야의 도서관 활동을 하기 위하여 조직되는 도서관에 임명된 도서관 직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주제전문사서의 주제 분야는 아주 세분되거나 특정한 분야일 수도 있으며, 관련된 학문 영역 전체를 포함하는 넓은 것일 수도 있다(강미혜 2005, 69).

나. 주제전문사서의 역할

SLA(2005)는 21세기 주제전문사서의 역할을 다음의 <표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1> 주제전문사서의 역할

자료(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의 수집·선정 및 균형 있는 장서 관리와 개발(제본 관리, 자료의 위탁 등) ▶분류, 편목, 색인 및 초록 등을 작성하는 서지통정 기능 ▶문헌조사, 서지의 편찬 및 독서목록의 준비 ▶주제별 문헌에 대한 안내자료, 정보자료, 서지안내서 등에 대한 도서관에서의 서비스와 배포 ▶신착자료목록의 작성 및 배포, 신간 책자에 대한 정보 안내 ▶정보자원의 개발·관리·평가
참고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와의 관계 정립: 접촉 강화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 유지 및 증진 ▶자료 이용 상담 및 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사항 해결 및 이용자 질의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방법 연구(특정 주제 관련 질문의 해결과 새로운 답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부 직원들과의 협조를 통한 정보 제공 ▶장서정책과 함께 e-자원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대학생, 대학원생 및 교수진의 요청에 의한 문헌조사 및 교수진의 연구를 위하여 연구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적절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 ▶더 많은 전문주제지식 습득 및 정보기술의 훈련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최적의 정보 제공 ▶편리하고 사용하기 쉬운 비용효율적인 정보서비스의 개발과 관리 ▶목차 속보, 복사 서비스, 최신 정보의 선택적 배포 서비스(SDI)
강의와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과 이용자교육(도서관 부각, 전자도서관 이용 교육 및 강좌 또는 세미나 개최 등) ▶이용자의 수준에 맞는 도서관 이용 교육프로그램 개발
도서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도서관 계획, 서고 배치, 서비스 운영 참여 ▶도서관 건물 신축에 따른 설계와 계획에 참여 ▶주제 열람실 운영 관리 기능 ▶대외적으로 주제전문사서는 도서관의 문제 해결자적 기능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전문 대학원과 대학에 최소한 1명 이상과의 긴밀하고도 정규적인 접촉 유지 ▶교수진으로부터 도서관 이용교육, 강의 문제에 대한 협력 획득 ▶유관 기관과의 연계 기능: 주제전문분야의 전문 대학원, 대학, 학과와의 공적 관계 수립

<표 1>과 같이 주제전문사서는 이용자들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요청에 대한 답변 및 해결자로서의 역할과 함께, 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에 참여하고 이용자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주제 분야와 관련된 학과 및 교수와 지속적인 연계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전자정보의 검색 및 처리 기술과 주제 분야 지식을 바탕으로 장서 및 정보자원에 대한 관리와 개발의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정재영 2007, 396). 하지만 SLA에서 제시한 내용에는 주제전문사서로서 정신보건사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전통적으로 참고봉사 영역은 이용자와 일대일 서비스를 행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독서치료 상담의 영역과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영역의 세부 내용 중에 ‘이용자의 요청사항 해결 및 이용자 질의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방법 연구(특정 주제 관련 질문의 해결과 새로운 답변 방법)’에 ‘독서치료’를 포함시키고, ‘본 역할을 담당하는 주제전문사서는 정신보건사서라고 칭한다’라는 내용 또한 포함된다면, 주제전문사서의 범주에 정신보건사서의 영역도 자리를 잡을 것이다.

2. 정신보건사서

가. 정신보건 영역에서의 치료

의료에서의 궁극적인 목적이 치료를 넘어선 치유라면, 정신보건 영역에서의 치유는 보다 직접적인 목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김나경, 손홍수 2010). 여기서 의료의 직접적인 목적은 질환의 제거를 의미하는 것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질환의 제거 이상의 환자 복지를 의미한다. 일반 의료 영역과 정신보건 영역 사이에 목적상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이해는 일반 의료 영역에서의 신체적 질환과 정신보건 영역에서의 정신적 질환의 원인을 먼저 이해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신체적 질환의 경우 그 질환 자체의 원인은 신체에 있는 것이고, 그 질환으로 인해 환자의 심리적 상태가 불안정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의료 영역에서의 의료는

치료를 통한 질환의 원인 제거가 바로 직접적인 목적, 그리고 의사가 환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치유’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적 질환의 경우 질환의 원인이 ‘정신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환자의 질환을 제거하는 것 자체가 환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치유이며, 이에 따라 정신보건 영역에서의 의료는 치료가 아닌 치유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들 수밖에 없게 된다(이상돈 2004, 5).

나. 독서치료의 특징

독서치료는 치료사와 내담자 혹은 치료사와 참여자들의 상호작용 과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상호작용을 강조한 Hynes와 Hynes-Berry(1947)는 “상호작용적 독서치료에서 훈련된 치료자는 임상적(Clinical) 또는 발달적(Developmental) 독서치료 참여자의 감정과 인지적 반응을 통합하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선택된 문학작품-인쇄된 글, 시청각 자료, 참여자 자신의 창의적인 글쓰기 작품-에 대한 토론을 유도하고 이끌어 나간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독서치료가 문학작품을 통하여 참여자와 치료자의 치료적 상호작용을 유발시킴으로써 참여자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다.

다. 정신보건사서의 개념

문헌정보학계에는 아직 정신보건사서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문헌정보학에 앞서 정신보건 전문가의 개념을 정립한 간호학과 사회복지학에서 그 개념을 찾아보고자 한다.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신전문간호사는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특수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후 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상급 실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이다.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의 간호실무 3년 이상의 경력자로서 대학원(전문 간호사 과정) 또는 그 수준에 준한 전문 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문 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다. 전문 간호사는 임상 간호술 뿐 아니라 전문 간호 분야의 관련 지식이 뛰어난 실무자로, 간호 대상자에게 안전하고 질적이며 효과적인 간호를 제공한다. 이를 위한 전문 간호사의 구체적인 역할은 전문가적 간호 실무 수행자, 교육자 및 상담자, 자문·협동·조정자, 연구자, 지도자, 변화 촉진자, 윤리적 의사 결정자, 일반 간호사의 역할 모델 등이다.

또한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의료기관이나 정신보건센터, 복귀 시설에서 환자의 치료,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사정, 진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기획, 실시, 평가, 지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되려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정신보건 분야의 수련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수련을 해야 한다. 수련 기간을 거치고

나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신보건사서의 개념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정신보건사서는 사서에게 부여된 기존 역할 개념을 확장시킨 것으로, 의료기관²⁾이나 정신보건센터, 학교 등에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도서실)과 독서치료 상담실을 설치하고 있는 전국의 공공 및 전문도서관에서, 독서치료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호소하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를 말한다. 따라서 정신보건사서가 되기 위해서는 정사서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현장에서 사서 실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서,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정신보건사서 과정을 수료하고(2년 과정) 관련 분야의 수련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수련 과정(1년)을 마친 뒤 심사에 합격을 해야 한다. 정신보건사서가 된 사람은 전문가로서 독서치료 실무를 수행할 수 있고, 관련 교육 및 상담, 자문·협동·조정자, 연구자, 지도자, 변화 촉진자, 윤리적 의사 결정자, 일반 사서의 역할 모델 등을 행할 수 있다. <표 2>는 정신보건사서의 개념, 역할, 자격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정신보건사서의 개념, 역할, 자격

개념	정신보건사서는 의료기관이나 정신보건센터, 학교 등에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도서실)과 독서치료 상담실을 설치하고 있는 전국의 공공 및 전문도서관에서, 독서치료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호소하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를 말한다.
역할	정신보건사서가 된 사람은 전문가로서 독서치료 실무를 수행할 수 있고, 관련 교육 및 상담, 자문·협동·조정자, 연구자, 지도자, 변화 촉진자, 윤리적 의사 결정자, 일반 사서의 역할 모델 등을 행할 수 있다.
자격	정신보건사서가 되기 위해서는 정사서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현장에서 사서 실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서,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정신보건사서 과정을 수료하고(2년 과정) 관련 분야의 수련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수련 과정(1년)을 마친 뒤 심사에 합격을 해야 한다.

3. 선행연구

주제전문사서로서의 정신보건사서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지만, 주제전문사서의 필요성과 운영실태, 나아가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등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편이다.

먼저 한상완(1975)은 ‘대학도서관 참고/정보업무에 있어서 주제 전문가의 기능에 관한 연구’에서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특히 대학도서관 참고/정보업무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찰하였다.

2) 병원으로 대표되는 의료기관에는 모 기관의 연구자와 직원을 위한 의학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축적, 보존 및 정보를 제공하는 의학도서관과, 환자 및 보호자들을 위한 병원도서관이 있다. 이때 의료기관의 정신보건사서는 병원도서관에 근무를 하며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질병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강미혜(2004)는 ‘주제전문사서직의 교육에 관한 연구 :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에서 주제전문사서직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문헌자료를 기초하여 주제전문사서직의 정의, 역할, 교육 등에 관한 이론 등을 고찰하였다. 그 다음 주제전문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국립중앙도서관을 선정하여 도서관의 기능과 주제전문사서직의 현황을 알아 보고 현장 사서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주제전문사서직의 교육과 계속 교육에 대한 사서들의 현황, 경험, 견해 등을 조사하였다.

남영준과 허운순(2005)은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연구’를 통해 국내 4개 대학교와 미국의 3개 대학교의 교과과정 및 미국도서관협회(ALA: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도서관교육협회(ALISE: Associ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와 기타 기관에서 정보전문가(Information specialist)의 양성 과정을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내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의 수와 학점 수를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인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문헌정보학 교육 및 교과과정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노영희 등(2008)은 ‘주제전문서비스 운영실태 분석 연구’를 통해 당시 주제전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도서관들을 대상으로 이들 도서관들의 주제전문사서체제 도입배경, 주제전문서비스 내용 및 효과, 운영상의 애로사항 및 운영방법, 주제전문사서 채용방법 및 교육훈련방법, 주제전문사서의 직무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주제전문화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국내외 주제전문사서 구인구직 수요도 비교·분석하였다.

이호신(2012)은 ‘주제전문사서의 직업정체성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 법학전문사서를 중심으로’라는 연구를 통해 사서들의 직업적인 경험과 의미를 보다 세밀하게 기술하는 작업을 통해서 그 사회적인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밝히고, 우리 사회에 팽배한 사서직에 대한 몰인식을 해소하는 대안적인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주제전문사서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서들이 현장 활동에서 지식과 맺게 되는 상호작용을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는 각각 편지, 소설, 자서전 형식의 독립적인 이야기로 재구성되었고, 각각의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는 참여자들의 직업정체성은 ‘미운 아기 오리’, ‘시지프스’, ‘샘물’이라는 은유로 표현되었다.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직업정체성의 모습은 ‘헤르메스적 삶’이라는 비유로 표현되었다. 재구성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참여자들의 직업 경험의 의미는 ‘지식의 중개자로서 헌신하는 삶’, ‘학자로서의 삶에 대한 지향’, ‘조력자로서의 삶의 애환’으로 해석되었다. 한편 사서들의 개인적 현장 지식의 모습에서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지식을 다루어야만 하는 업무구조로 인하여 지식으로부터 소외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노동조와 남민석(2013)은 ‘주제전문사서체제의 도입 여부가 도서관의 선정과 대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연구를 통해 주제전문사서체제가 도입되기 이전과 이후에 선정된 개별 도서관에 대

한 대출 현황을 조사하여 그 효과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주제전문사서제의 도입 이후에는 사서에 의한 도서 선정의 비율이 높아졌고, 교수와 사서에 의해 선정된 국외서에 대한 대출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임민정(2015)은 ‘법률주제전문사서의 자격요건에 관한 연구’를 통해 법률도서관 사서들의 법률주제전문사서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요인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대학교에서 개설한 교육과정을 조사하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제도상에서 법률주제전문서비스를 위해 제시한 여섯 개의 법률 관련 교육 영역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여, 법률이라는 영역 자체가 전문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선행연구 현황 : 주제전문사서

연구자	연구 내용
한상완 (1975)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특히 대학도서관 참고/정보업무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찰
강미혜 (2004)	주제전문사서직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문헌자료를 기초하여 주제전문사서직의 정의, 역할, 교육 등에 관한 이론 등을 고찰. 이어서 주제전문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국립중앙도서관을 선정하여 도서관의 기능과 주제전문사서직의 현황을 알아보고 현장 사서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주제전문사서직의 교육과 계속 교육에 대한 사서들의 현황, 경험, 견해 등을 조사
남영준허운순 (2005)	국내 4개 대학교와 미국의 3개 대학교의 교과과정 및 미국도서관협회(ALA: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도서관교육협회(ALISE: Associ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와 기타 기관에서 정보전문가(Information specialist)의 양성 과정을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내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의 수와 학점 수를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인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문헌정보학 교육 및 교과과정 개선방안을 제안
노영희 등 (2008)	주제전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도서관들을 대상으로 이들 도서관들의 주제전문사서체제 도입 배경, 주제전문서비스 내용 및 효과, 운영상의 애로사항 및 운영방법, 주제전문사서 채용방법 및 교육훈련방법, 주제전문사서의 직무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주제전문화의 방향을 모색
이호신 (2012)	사서들의 직업적인 경험과 의미를 보다 세밀하게 기술하는 작업을 통해서 그 사회적인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밝히고, 우리 사회에 팽배한 사서직에 대한 물인식을 해소하는 대안적인 담론을 형성하고자 함
노동조남민석 (2013)	주제전문사서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과 이후에 선정된 개별 도서에 대한 대출 현황을 조사하여 그 효과성의 차이를 분석
임민정 (2015)	법률도서관 사서들의 법률주제전문사서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요인을 파악

<표 3>에 정리한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주제전문사서를 다룬다. 따라서 주제전문사서로서의 정신보건사서의 개념을 정립하고, 도서관 현장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제시하며, 나아가 사서직이 정신보건을 담당하는 전문적이라는 인식을 이용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담론 형성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데 지침이 되었다.

이어서 지역사회 도서관에서의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등의 역할, 독서치료와 치유 개념을 도입한 도서관 공간 구성 등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김정근과 송영임(2003)은 ‘지역사회 정신보건 문제와 독서치료’라는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 정신보건의 현실을 살펴보고, 이어서 그것의 배경이 되는 마음의 상처와 장애문제를 논의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현실과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처방안으로서 독서치료에 대해 알아본 뒤, 독서치료를 매개로 한 공공도서관의 개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송영임(2003)은 ‘정신보건을 위한 공공도서관 역할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정신보건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현실에서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 정신보건을 위해 관련 서비스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정신보건 분야에 개입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인 독서치료를 공공도서관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본 다음 구체적 적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연옥(2010)은 ‘북미 공공도서관계 정신건강 지원서비스의 경향과 특성’ 연구를 통해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의 정신건강 관련 지원서비스의 경향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한 데이터는 문헌연구와 밴쿠버 공공도서관을 사례로 하는 관찰과 면담을 통해 수집되었는데, 공공도서관은 국가적 비극이나 자연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겪게 되는 주민들의 충격과 불안,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시적 서비스를 비롯하여 독자상담과 정보서비스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문제를 일상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특히 어린이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입양, 이혼, 재혼, 별거가족, 친구, 장애, 죽음, 자아존중, 정서, 왕따, 폭력, 학대, 자살, 질병, 중독, 성문제, 청소년임신 등)와 관련한 지원이 활발했는데, 이와 같이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적합한 책을 선정하여 추천하며, 관련 전문기관을 안내하고 연결해주는 데 있는 것은 사서들의 핵심적 역할이라 강조하였다.

김정운(2013)은 ‘사회적 치유 개념을 도입한 도서관 공간 구성 요소에 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치유 개념을 도입한 도서관 공간을 위하여 과거의 소장 도서 및 정보의 제공, 서비스라는 전통적 역할에 덧붙여서 다양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 행사, 교육, 지역,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지역 복합 문화센터로 그 기능을 확대하고, 더불어 치유 요소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공간 구성 요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통해 도서관 공간에 대입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들 간의 건전한 정신 및 시민의식을 확산시키며,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에 정리한 선행연구들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을 위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를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비록 이 연구들은 주제전문사서로서의 정신보건사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신보건이라는 주제에 걸맞은 도서관 서비스

를 위해 독서치료를 매개로 행할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과 사서의 서비스 영역도 확장될 것이므로, 그에 따라 독서치료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사서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표 4〉 선행연구 현황 : 도서관과 정신보건

연구자	연구 내용
김정근·송영임 (2003)	우리나라 정신보건의 현실을 살펴보고, 이어서 그것의 배경이 되는 마음의 상처와 장애문제를 논의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현실과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처방안으로서 독서치료에 대해 알아 본 뒤, 독서치료를 매개로 한 공공도서관의 개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
송영임 (2003)	우리 사회의 정신보건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현실에서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 정신보건을 위해 관련 서비스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힘
이연옥 (2010)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의 정신건강 관련 지원서비스의 경향과 특성을 살펴봄
김정운 (2013)	치유 요소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공간 구성 요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통해 도서관 공간에 대입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들 간의 건전한 정신 및 시민의식을 확산시키며,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의의를 두었음

Ⅲ. 정신보건사서 양성 교육과정 개발

1. 교육과정

교육과정(curriculum)이란 일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의 모든 과정을 마칠 때까지 요구되는 교육목표·교육내용, 그리고 그 내용을 학습하기에 필요한 연한과 연한 내에 있어 학습시간 배당을 포함한 교육의 전체 계획을 의미한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9).

2. 정신보건사서 양성 및 수련 교육과정

정신보건사서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수련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제시하기에 앞서, WHO(2005)의 정신보건 전문 요원 훈련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았다. 이 가이드라인은 정신보건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역량 있는 인력을 배출함으로써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전체 정신보건 인력 정책의 목표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교육 수련과정의 기획은 정신보건 인력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과정 개발의 세 가지 핵심 원칙은 ① 현재 교육훈련 제공에 대한 평가, ② 교육훈련 제공에 대한 미래의 욕구 평가, ③ 미래의 욕구에 맞게 현행 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표 설정이다(김창곤 2013, 165-166).

WHO(2005)가 제시하고 있는 교육수련 과정(안)은 가) 교육수련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목적, 나) 수행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목적과 목표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함, 다) 정기적으로 예정된 이론교육 일정 제시, 라) 수련생의 의무와 책임 및 수련교육에서 수퍼비전에 대한 기술, 마) 보수교육 및 훈련과 수퍼비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서 살펴본 영국의 정신보건 전문 요원 수련제도(Hps, 2012)는 과거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한 Approved Social Workers(ASWs) 제도에서 정신보건 전문 요원(Approved Mental Health Professional, AMPH) 제도로 확대 개편되었다. 정신보건 전문 요원의 교육 및 수련 체계는 등록 및 허가, 교육 및 수련, 인증, 보수교육 등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단계에서 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AMPH 수련교육은 직접적인 정신보건 실천, 개인조사, 수퍼비전, 포트폴리오 작성 등을 포함해 최소 600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이 기간 중 최소 150시간은 정규 수련교육 과정에 할당되어야 한다.

영국의 정신보건 전문 요원 수련제도(Hps, 2012)는 정신보건법령, 정책,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역할과 책임, 디스트레스, 정신장애의 원인과 치료, 위기관리, 디스트레스의 영향과 기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정신보건전문요원에 대해서도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에서 공동 교육에 대한 논의와 시도가 있었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009)이 보고한 ‘정신보건전문요원 제도개선 및 교육지침개발’에서도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3개 직역의 수련 교육과정 내용의 유사성과 전문성을 파악하여, 공동 이론교육과 공동 실습교육에 대해 다음의 <표 5>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김창곤 2013, 171).

<표 5> 정신보건전문요원(2급)의 수련 교육과목과 이수시간

	정신보건임상심리		정신보건간호		정신보건사회복지	
	총계	1000	총계	1000	총계	1000
	소계	150	소계	150	소계	150
이론	개인심리치료 I	30	건강사정 및 진단 I	30	정신보건기초사정 및 평가	35
	심리평가 I	30	정신간호중재 및 치료 I	60	정신의학	25
	정신사회재활이론	30	발달단계별 정신간호	26	사회사업치료	20
	면담기법	20	지역사회 정신간호	25	정신건강문제	10
	정신병리학(이상심리학)	30	간호연구	9	사회복지서비스	40
	정신약물학	10				
		소계	830	소계	830	소계
실습	심리평가	330	건강사정 및 진단 I	150	사회사업 사정	250
	개인/집단심리치료	150	정신간호 중재 및 치료 I	360	사회사업치료 I	100
	정신사회재활	150	발달단계별 정신간호	240	사회사업치료 II	230
	개별사례분석	200	지역사회 정신간호	40	사회사업치료 III	250
			간호연구	40		
학술활동		20		20		20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제도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모두 이론 150시간, 실습 830시간, 학술활동 20시간, 총 100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이론과 실습의 과목 및 각각의 시간에서는 분야마다 차이가 있다.

정신보건사서 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은 한국독서치료학회의 독서심리전문상담사³⁾ 교육과정과 자격규정이다. 한국독서치료학회는 2002년도 개설된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의 독서치료전문가 과정 1기 수료생들을 기반으로 2003년도에 창립된 단체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독서치료 분야 전문가를 배출해 내기 위한 과정을 시작한 곳이자 2017년 현재까지 가장 오랜 기간 유지를 하고 있는 기관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다. 정신보건사서는 독서치료 상담실에서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를 실시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독서치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독서심리전문상담사 과정은 어떤 내용으로 얼마 동안 이루어지고, 자격 요건이나 등급, 나아가 수련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정신보건사서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설계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다음의 <표 6>와 <표 7>은 한국독서치료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2015학년도 하반기 독서심리전문상담사 기본 및 심화 교육과정의 내용이다.

<표 6> 한국독서치료학회 독서심리전문상담사 기본 교육과정

개설	기본과정 과목	세부 과목
2급 자격시험 과목	독서치료와 문학	1. 그림책
		2. 신화
		3. 동화, 동시
		4. 시
5. 청소년 문학		
	독서치료론	독서치료론
	독서치료와 심리학	독서치료와 심리학

<표 7> 한국독서치료학회 독서심리전문상담사 심화 교육과정

개설	세부 과목
1급 수련 인정 과목	서사학을 활용한 독서치료 촉진 과정
	그림책 심리학 1 : 첫 그림책
	그림책 심리학 2 : 접 그림책
	동화분석, 융 심리학을 이용한 독서치료
	명작동화와 독서치료 과정
	클라인 정신분석 단기과정 2
	자기심리학 단기과정 1 : 자기대상
	자기심리학 단기과정 2 : 자기회복
	멘탈 힐링을 위한 사이코드라마 접근

3) 우리나라에서는 자격증 명칭에 ‘치료’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치료’는 의사들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서치료’ 분야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은 ‘독서심리상담사’ 혹은 ‘독서심리전문상담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표 6>와 <표 7>의 내용을 보면 기본과 심화과정에 독서치료론은 물론 문학, 심리학, 서사학, 사이코드라마 등의 분야가 두루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독서치료는 하나의 학문이 아닌 여러 분야들로 이루어진 학제 간 학문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고, 결국 여러 분야를 섭렵한 전문가여야 현장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으로는 주제전문사서로서의 정신보건사서가 되어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문학, 심리학, 서사학, 사이코드라마 등의 분야가 포함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다음의 <표 8>은 한국독서치료학회 자격규정에 담긴 수련 분야와 그 내용이다.

<표 8> 한국독서치료학회 자격규정 수련 분야

수련 분야	관련 내용
1. 독서치료 관련 이론	이론 과목은 독서치료에 필요한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기초 지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 분야는 크게 독서치료 분야와 심리학 분야, 문학 분야로 나누고, 다음에 해당하는 분야의 과목을 모두 포함한다. ① 독서치료 분야 : 독서교육론, 독서치료론, 독서치료 실제, 시 치료, 이야기 치료, 글 쓰기 치료 ② 심리학 분야 : 이상심리학, 집단상담, 상담심리, 인간 발달, 성격이론, 심리 측정 및 검사 ③ 문학 분야 : 어린이문학, 청소년문학, 문학사, 문학 이론, 그림책의 이해, 글쓰기, 서사
2. 독서치료 실습	독서치료 실습에는 개인·가족·집단치료 경험이 모두 포함된다. 독서치료 실습의 장소는 학교, 도서관, 교회, 교도소 등 관련 치료 기관이 모두 포함되나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준을 거친 장소로 한한다.
3. 슈퍼비전(동료실습 포함)	개인 및 집단 슈퍼비전에는 수련자들이 독서심리전문상담 전문가나 수련감독의 지도하에 독서치료 실습을 지도 받는 것, 조언을 듣는 것, 피드백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교대로 지도자가 되어 집단을 이끌고 토의 하는 수련도 포함된다.
4. 학회 연수 및 학회(분과)	활동 독서치료 수련은 학회 연수 및 학회(분과) 활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은 수련시간 인증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시간을 인정받는다.
5. 기관 실습	기관 실습에는 독서치료 관련 기관 사례 협의, 실무의 회의 활동, 다른 학문 분야와의 팀 미팅, 기록 보존 및 기타 임상적인 작업들이 포함된다.
6. 심화과정	심화과정에는 독서치료 관련 연구, 연구 논문 집필, 연구 서적의 저술, 수련감독에게 승인되는 독립적인 연구 계획 참여, 워크숍 참여 등이 포함된다.

<표 8>의 내용을 통해 독서심리전문상담사 자격을 유지하고 현장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관련 이론을 습득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습과 연수, 슈퍼비전과 심화과정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독서치료학회에서 인정하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급을 취득한 이후 독서치료 관련 이론 180시간, 독서치료 실습 225시간, 독서치료 슈퍼비전 70시간, 학회 연수 및 학회(분과) 45시간, 심화과정 100시간 등 총 620시간 동안 수련을 해야 하고 그 결과를 심사받아야 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WHO(2005)의 정신보건 전문 요원 훈련 가이드라인, 영국의 정신보건 전문 요원 수련제도(Hps, 2012), 정신보건전문요원(2급)의 수련 교육과목과 이수시간,

한국독서치료학회의 독서심리전문상담사 교육과정 및 자격규정은 정신보건사서 양성 및 수련 교육과정 개발에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반영되었다.

첫째, WHO(2005)가 제시하고 있는 교육수련 과정(안)은 교육과정 개발의 전체적인 목적 수립, 교육 내용 및 일정 제시, 수퍼비전에 대한 기술을 위한 근거가 되었다.

둘째, 영국의 정신보건 전문 요원 수련제도(Hps, 2012)에 담겨 있는 최소 600시간의 교육시간 이수 및 최소 150시간은 정규 수련교육 과정에 할당되어야 한다는 규정과, 정신보건 전문요원(2급)의 수련 교과목과 이수시간은 정신보건사서 양성 교육과정 및 수련과정의 시간 확립을 위한 근거가 되었다.

셋째, 한국독서치료학회의 독서심리전문상담사 교육과정과 자격규정은 정신보건사서 양성을 위한 교과목과 수련분야 및 내용을 구체화 하는 근거가 되었다.

3. 정신보건사서 양성을 위한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 편성 방안

국내의 문헌정보학 교육체계는 학부 위주로 되어 있어 다양한 주제 분야의 배경을 가진 주제전문사서의 양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대학도서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의 전문성 기반이 학부의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있어 주제사서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헌정보학의 근간 교육과정을 대학원으로 옮겨서 다양한 학부 전공을 이수한 사람들이 대학원 과정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게 하여 전문성이 높은 사서를 양성하자는 미국형 문헌정보학 교육체계도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이 동의하는 것은 주제사서의 양성을 위한 정규교육체계의 변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심원식 2009, 543).

그럼에도 시대 변화에 따라 도서관 및 사서의 역할도 달라지기 때문에 정규교육체계의 변화를 피해 시대에 부응하는 도서관 및 사서의 역할을 지향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정신보건사서는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 교육과 수련과정을 통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학부 과정에서부터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학생들에게는 독서치료 상담실에서 정신보건사서로 근무하면서 전문적 심리치료를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다음의 <표 9>은 학부과정에 문헌정보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 중(전문대학 포함) 홈페이지를 통해 교과과정을 입수할 수 있는가, 나아가 독서치료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정리한 것이다.

〈표 9〉 대학교 학부과정 내 독서치료 과목 개설 현황

연번	대학교명	홈페이지를 통한 교과과정 이수 여부	독서치료 과목 개설 여부
1	건국대학교	○	X
2	경기대학교	○	○
3	경북대학교	○	X
4	경성대학교	○	X
5	경일대학교	○	X
6	계명대학교	○	X
7	공주대학교	○	X
8	광주대학교	○	X
9	나사렛대학교	X (2018년부터 폐과)	○
10	대구가톨릭대학교	○	X
11	대구대학교	○	X
12	대진대학교	○	X
13	덕성여자대학교	○	X
14	동덕여자대학교	○	X
15	동의대학교	○	X
16	명지대학교	○	X
17	부산대학교	○	X
18	상명대학교	○	X
19	서울여자대학교	○	X
20	성균관대학교	○	X
21	숙명여자대학교	○	X
22	신라대학교	○	X
23	연세대학교	○	X
24	이화여자대학교	○	X
25	인천대학교	○	X
26	전남대학교	○	X
27	전북대학교	○	○
28	전주대학교	○	X
29	중부대학교	○	X
30	중앙대학교	○	X
31	청주대학교	○	X
32	충남대학교	○	○
33	한남대학교	○	X
34	한성대학교	X	X
35	대림대학교	○	X
36	동원대학교	○	X
37	부산여자대학교	○	X
38	승의여자대학교	○	X
39	창원문성대학교	○	○

2017년도 12월 현재 대학교 내 문헌정보학과가 설치된 곳은 총 39곳이다. 이 가운데 나사렛대학교 점자문헌정보학과는 2018학년도 1학기부터 폐과가 확정되어 더 이상 신입생을 선발하

지 않는다. 따라서 홈페이지도 사라진 상태이지만 2014학년도 2학기부터 독서치료론이라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현 재학생이 모두 졸업을 할 때까지는 운영이 될 예정이라는 점을 학과 사무실의 조교를 통해 확인했다. 그 외 한성대학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교과과정을 입수할 수 없었으므로, 입수가 된 37곳의 학교 중 독서치료 과목이 개설된 곳은 경기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의 총 4곳(나사렛대학교를 포함하면 총 5곳)이었다. 이 결과를 통해 문헌정보학과 학부과정 내 독서치료 과목의 개설 비율은 8% 정도로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박지현(2006, 17-18)은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학부과정에 문헌정보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4년제 대학 중, 홈페이지를 통해 교과과정을 입수할 수 있는 30개 대학을 선정해 공통되는 대표적 교과내용과 개설학교 수, 개설율을 조사해 표로 정리하였다. <표 10>는 박지현이 정리한 한국 30개 대학의 영역별 공통 대표 교과 내용이다.

<표 10> 한국 30개 대학의 영역별 공통 대표 교과 내용

영역	과정	개설학교 수	개설 율(%)
1) 정보관리/연구 영역	서지학개론	22	73.3
	기록관리론	12	40.0
	도서관문화사	11	36.7
	전통문헌분석	6	20.0
	장서관리론	6	20.0
	지식관리시스템	5	20.0
	멀티미디어정보관리	3	10.0
2) 정보기술 영역	전자도서관구축론	20	66.7
	데이터베이스	15	50.0
	정보시스템론	14	46.7
	정보학	11	36.7
	정보네트워크론	11	36.7
	인터넷서비스구축론	6	20.0
	메타데이터	5	16.7
3) 정보접근 영역	자료조직법	30	100.0
	정보검색	20	66.7
	온라인정보검색	16	53.5
	색인초록	13	43.3
	정보조직론	5	16.7
4) 정보자원 영역	인문과학정보	20	66.7
	과학기술정보	18	60.0
	장서개발론	11	36.7
	사회과학정보	8	26.7
	정부간행물	6	20.0
	어린이와 청소년자료	6	20.0
	비도서자료	5	16.7

<표 10>의 내용을 보면 각각의 영역이 비교적 고르게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사서 고유의 전문성과 관련 있는 목록/분류, 초록/색인 등의 접근에 관한 부분인 ‘정보접근 영역’에 가장 많은 과목을 개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학부과정에 아직 독서치료 과목이 개

설되어 있지 않은 대학에서는 ‘이용자 서비스 영역’을 추가하고 ‘독서와 심리’(또는 ‘심리학적 독서’), ‘독서치료론’ 등의 과목을 과정에 포함시킨다면 정신보건사서를 위한 보완이 될 것이다.

이어서 <표 11>은 2017년 현재 전국 대학교 가운데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된 대학원 석사 과정의 정신보건사서 양성 교육과정(2년 기준)에 포함될 교과목과 그에 대한 설명을 정리한 것이다.

<표 11> 정신보건사서 양성 교육과정

전공명		정신보건사서(Mental Health Professional Librarians)	
교육목표		확고한 윤리의식과 직업적 자질을 갖춘 정신보건사서를 양성하여, 도서관 현장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전문인을 배출한다.	
이수구분	교과목명	교과목 해설	학점
독서치료학	독서치료론	독서치료의 개념, 절차 등 기초 지식을 배양한다.	3
	독서치료 프로그램 계획	독서치료의 절차와 원리에 따라 적정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3
	대상별 유형별 독서치료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유형별 독서치료를 이해한다.	3
	독서치료 수퍼비전	대상별 유형별로 계획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수퍼비전을 실시한다.	3
	독서치료 운영 실습	대상별 유형별로 계획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운영 실습을 한다.	3
	독서치료 연구	독서치료 연구를 위한 제반 이론과 실체를 다룬다.	3
심리학	면담 기법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면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3
	심리평가	다양한 심리평가의 특성을 이해하고 실시 및 채점 등 현장 활용 능력을 갖춘다.	3
	발달심리	각 단계에 따라 신체, 인지, 정서, 사회적 발달과 건강을 도모한다.	3
	개인상담	개인치료를 위한 이론과 실제 능력을 습득한다.	3
	집단상담	집단치료를 위한 이론과 실제 능력을 습득한다.	3
	평가보고서 작성	세션 별 보고서 및 평가 보고서 작성에 대해 알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3
정신병리학 (이상심리학)	정신보건 기초	정신보건의 기본적 개념을 익힌다.	3
	정신병리학	정신병리의 개관, 증상, 주요 정신장애 등의 정신 현상을 이해한다.	3
	정신약물학	정신병리를 치료할 수 있는 약물에 대해 이해한다.	3
	DSM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키운다.	3
문학	문학의 이해	그림책, 동화, 시, 소설 등 독서치료에서 활용되는 여러 문학의 특성을 이해하고 치료적 가치를 탐구한다.	3
	문학과 독서치료 (서사학)	문학에 담겨 있는 이야기 및 내담자 및 참여자들의 이야기의 기술과 구조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힌다.	3
	상황별 독서	정보제공형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 목록 체계를 만들고, 관련 작품을 선정한다.	3
문헌정보학	도서관과 독서치료	도서관 서비스로서 독서치료의 역사, 적용 방안, 실제 사례 등을 통해 현장 전문성을 배양한다.	3
	체험적 독서치료	집단 독서치료 참여자가 되어 체험을 통해 독서치료의 원리와 효과를 확인한다.	3
	독서치료 상담실 운영	도서관 내 독서치료 상담실 운영을 위한 준비 과정을 익히고, 현장 상담실을 방문해서 직접 체험한다.	3

<표 11>에 정리해서 제안한 정신보건사서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는 총 5개의 분야(독서치료학, 심리학, 정신병리학, 문학, 문헌정보학) 22개의 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과정에 포함된 5개 분야는 학제 간 학문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독서치료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로, 이 학문들을 두루 섭렵했을 때 비로소 독서치료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정신보건사서 역시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표 5>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정신병리학도 포함을 시켰다. 결국 정신보건사서는 독서치료전문가이자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제시한 정신보건사서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은 대학원 별 상황에 따라 석사 및 박사 과정으로 구분 지어 운영할 수 있고, 각 과정에 따라 필수 및 선택과목, 나이가 최소 이수 학점을 설정할 수도 있다. 다만 정신보건사서는 문헌정보학과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없기 때문에 학과 간 연계과정으로 구축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고, 심리학이나 정신병리학은 물론이고 문학과 문헌정보학을 가르칠 교수들 역시 독서치료학에 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음의 <표 12>에 담긴 내용은 정신보건사서가 된 이후 자격 유지는 물론 현장 전문가로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련과정을 개발 및 정리한 것이다.

<표 12>에 정리 및 제시한 정신보건사서 수련과정은 총 500시간으로, 정신보건전문요원(2급)의 수련 시간인 1000시간, 한국독서치료학회의 독서심리상담전문가 수련 시간인 620시간에 못 미친다. 따라서 향후 정신보건사서 역시 국가가 인정하는 정신보건전문요원에 포함이 되기 위해서는 수련 시간을 1000시간으로 맞출 필요가 있겠으나, 시작 단계에서는 한국독서치료학회에서 인정하는 전문가 수준에 준하는 정도로 설정하고 점차 늘려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IV. 결론 및 제언

이제까지의 주제전문사서 양성 방안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교육과정의 변화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학계의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하지만 학계의 역할만으로 주제전문사서를 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체계적이고 다양한 주제교육의 제공과 함께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정책 개발과 재정적 지원, 그리고 도서관 현장의 처우개선 및 고용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정재영 2007, 399).

본 연구는 사회구조의 변화 및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의 출현에 대한 대응기제로서 정신보건사서라는 전문 인력의 개발기제를 점검하고 양성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 조사를 통해 독서치료의 특징, 정신보건사서의 역할, 자격요건과 양성

〈표 12〉 정신보건사서 수련과정

영역(시간)	수련 분야	관련 내용
이론 (150시간)	1. 독서치료 관련 이론	정신보건사서는 독서치료 상담실을 운영하는 주제전문사서로서 다음의 관련 이론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① 독서 분야 : 독서론, 독서교육론, 독서지도론, 독서코칭의 이해, 독서상담의 이해, 독서클리닉의 이해 등 ② 독서치료 분야 : 독서치료론, 독서치료의 문학작품 선정 및 활용, 독서치료에서의 상호작용, 독서치료 프로그램 계획 및 수퍼비전, 독서치료 실습, 대상별 유형별 독서치료의 실제, 시 치료, 이야기 치료, 글쓰기 치료 등 ③ 심리학 분야 : 심리학개론, 상담심리학, 발달심리학, 이상심리학, 청소년상담, 노인상담, 집단상담, 심리평가 등 ④ 정신병리학(이상심리학) : 정신보건 기초, 정신병리학, 정신약물학, DSM의 이해, 이상심리학 등 ⑤ 문학 분야 : 문학의 이해, 문학의 역사, 어린이문학의 이해, 청소년문학의 이해, 글쓰기 및 서사 등 ⑥ 문헌정보학 : 도서관과 독서치료, 체험적 독서치료, 독서치료 상담실 운영 등
	2. 독서치료 실습	정신보건사서는 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서비스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여러 대상을 만나 실습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실습은 개인 및 집단을 모두 포함하며 발달적(developmental), 임상적(clinical) 대상자를 아우른다. 정신보건사서는 2년 동안 리더(60시간) 및 코리더(40시간)로 최소 100시간 이상의 실습을 진행해야 한다.
실습 (250시간 : 독서 치료 실습 100시간, 수퍼비전 50시간, 기관 실습 100시간)	3. 수퍼비전 (피어비전 포함)	수퍼비전은 정신보건사서가 독서치료 상담실에서 만나는 치료 대상자들을 보호하고, 정신보건사서로서의 능력을 키우기 위한 과정이다. 따라서 피어비전을 포함해 독서치료전문가에게 1년에 5회 이상 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4. 기관 실습	정신보건사서는 보다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임상적 문제를 다루는 기관에서 실습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는 전문가 및 수련감독 자격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기관에는 병원, 상담치료관련 센터 및 연구소, 학교 등의 교육기관, 도서관 및 복지관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정신보건사서협회(가칭)에서 인정하는 곳이어야 하며, 2년 동안 최소 100시간 이상을 거쳐야 한다.
학술활동 (100시간)	5. 학회 연수 및 학회 (분과)	정신보건사서는 독서치료 관련 연수를 듣거나 분과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열심히 행할 필요가 있다. 관련 학회 및 분과는 1년에 최소 2회 이상 참여를 의무화한다.
	6. 심화과정	심화과정 역시 이는 전문가 및 수련감독 자격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독서치료 관련 연구를 통한 논문과 도서의 저술 및 출간, 수련감독에게 승인되는 독립적인 연구 계획 참여, 워크숍 참여 등이 포함된다. 전문가 및 수련감독 자격증을 받기 위한 심사에 참여한 사람은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학술지에 논문 1편을 신고, 독서치료를 주제로 한 도서 역시 1권 이상 출간을 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에 따른 계속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실제 교육과정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일련의 단계를 고찰하였다. 나아가 정신보건사서를 양성하기 위하여 문헌정보학과 교과목에 독서치료 영역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폭넓게 개설하고, 향후 교과과정에 참고하여 주제 전문화를 강화시키는 편성 방안의 검토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정신보건사서의 양성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으로 문헌정보학과 대학원에 ‘정신보건사서’ 과정을 설치하도록 제안하였다.

아직도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계에서는 도서관이 독서치료를 수용하는 것에 대해, 수용을 한다면 어느 선까지 해야 하는가 및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다. 그러나 이미 10년

이상 독서치료 상담실을 설치해 운영해 나가고 있는 도서관들이 있고(성남시중앙도서관, 남산도서관 등), 매년 유지 및 확대해 나갈 만큼 관련 서비스를 신청하는 이용자나 외부 유관 기관들도(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등) 존재하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 운영을 하며 도서관 서비스의 한 축으로 유지할 거라면 주제전문사서로서의 정신보건사서를 양성해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사서직의 전문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중의 하나인 주제전문사서의 자질 개량과 확충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정신보건사서라는 주제전문사서의 역할 확립과 우리나라 도서관 현장과 학계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미혜. 2005. 주제전문사서직의 교육에 관한 연구 :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덕성여대논문집』, 34: 67-86.
- 김나경, 손홍수. 2010. 의료 개념의 다층적 이해와 법. 『의료법학』, 11(2): 75-112
- 김정근, 송영임. 2003. 지역사회 정신보건 문제와 독서치료.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1): 19-41.
- 김정운. 2013. 『사회적 치유 개념을 도입한 도서관 공간 구성 요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실내건축학과.
- 김중환. 1970. 도서관 관계 전문직과 관계 학문의 재규정.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 133-146.
- 김창곤. 2013.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교육과정(1997-2013년)의 검토. 『한국사회복지교육』, 24: 161-187.
- 남영준, 허운순. 2005.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3): 39-64.
- 노동조·남민석. 2013. 주제전문사서제의 도입 여부가 도서의 선정과 대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0(3): 229-147.
- 노영희, 노동조, 안인자, 김성진. 2008. 주제전문서비스 운영실태 분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4): 97-123.
- 박지현. 2006.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 : 전문도서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 사공 철 등. 2003.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서울대학교 교육학연구소. 1999. 『교육학용어사전』. 서울: 하우.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 『정신보건전문요원 제도개선 및 교육지침 개발』. 서울: 서울대학교.
- 송영임. 2003. 『정신보건을 위한 공공도서관 역할 연구 : 독서치료의 적용과 관련하여』.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심원식. 2009. 주제전담사서 양성을 위한 사서 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40(1): 541-560.
- 이상돈. 2004. 『의료체계와 법』.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이연옥. 2010. 북미 공공도서관계 정신건강 지원서비스의 경향과 특성.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1): 51-76.
- 이호신. 2012. 『주제전문사서의 직업정체성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 법학전문사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임민정. 2015. 『법률주제전문사서의 자격요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정보봉사전공.
- 한상완. 1975. 『대학도서관 참고/정보업무에 있어서 주제 전문가의 기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cited. 2015. 10. 12]. <<http://www.kpmhna.or.kr>>
- 한국독서치료학회. [cited. 2015. 10. 12]. <<http://www.bibliotherapy.or.kr>>
- Fussler, Herman H. 1949. "The Bibliographer Working in a Broad Area of Knowledge."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10: 199-202.
- Holbrook, A. 1972. "The Subject Specialist in Polytechnic Libraries." *New Library World*, 73: 393-396.
- Humphreys, Kenneth. 1967. "Recent Developments in University Librarianship." *International Librarianship*. Ed. by George Chandler. (London: The Library Association): 129-135.
- Hynes, A. M. & Hynes-Berry, M. 1994. "Biblio/Poetry therapy-The Interactive process : A Handbook." St. Cloud, MN : North Star Press of St. Cloud.
- S. L. A. 2005. Competencies for Special Librarians of the 21st Century, revised June 2003. [cited 2015. 10. 12]. <<http://www.sla.org/content/learn/comp2003/index.cfm>>
- WHO. 2005. "Human Resources and Training in Mental Health."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Han, Sang-Wan. 1975. *The Developmental Function of subject Specialist in Reference/Information of University Library*. M.A. thesis. Major in Library

- Scienc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9. *A Developmental of Improvement on the System and Education for Mental Health Professional Agent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 Kang, Mia-Hye. 2004. "A Study on the Education for the Subject Specialist Librarianship." *Duksung Women's University Journal*, 34: 67-86.
- Kim, Chang-Gon. 2013. "The Review of Training Cutticulum(1997-2013) for Mental Health Social Worker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24: 161-187.
- Kim, Jeong-Gun & Song, Young-Im. 2003. "Community Mental Health Issues and Bibliotherap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4(1):19-41.
- Kim, Jeong-Woon. 2013. *A study on factors of library's space organization for social healing*. M.A. thesis. Major in Interior Architecture Department of Architecture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 Kim, Jung-Han. 1970. "The Librarianship and the Related Area Studi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1: 133-146.
- Kim, Na-Kyung & Son, Hueng-Soo. 2010. "Understanding Medicine as a Multi-dimensional Concept in the Legal Context." *Health Law*, 11(2): 75-112.
- Lee, Ho-Sin. 2012. *Narrative Inquiry on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Subject Specialist : Focusing on Law Librarians*. Ph.D. diss.,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 Lee, Sang-Don. 2004. *Health Care System & Law*. Seoul: Korea University Press.
- Lee, Yeon-Ok. 2010. "A Study on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Mental Health Services in the Public Libraries of North Americ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1): 51-76.
- Nam, Young-Joon & Heo, Oun-Soon. 2005. "A Study on the Curriculum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or Subject Specialis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6(3): 39-64.
- National Seoul University Education Institute. 1999. *Glossary of Education*. Seoul: Rain of Summer.
- Noh, Dong-Jo & Nam, Min-Seok. 2013. "An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Book

- Selection and Circulation After Introducing to Subject Librarian.”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3): 229-147.
- Noh, Young-Hee & Noh, Dong-Jo & Ahn, In-Ja & Kim, Sung-Jin. 2008. “An Analysis of Subject Specialized Servic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4): 97-123.
- Park, Ji-Hyun. 2006. *A Study on the curriculum for cultivation of a specialized theme librarian : a case of special library*. M.A. thesis. Department of Libra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onggi University.
- Sagong, Chul et al. 2003.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Shim, Won-Sik. 2009. “Curriculum Development of Training Librarians for Subject Liaison Servi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1): 541-560.
- Song, Young-Im. 2003. *A Study of the Role of Public Libraries in Mental Health Issues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Use of Bibliotherapy Program*. M.A. thesis. Department of Library Archives and Information Studies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 Yim, Min-Jeong. 2015. *A Study on the Professional Qualifications of Law Librarian*. M.A. thesis. Major in Information Service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